

미 태양에너지 전시회

Solar Power Int'l 2010

2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참여한 미국 최대의 태양광 산업 전시회

미 태양에너지 전시회 개요

미 태양에너지 전시회(Solar Power International)는 북미 최대의 태양에너지 행사로, 태양전력협회(SEPA: Solar Electric Power Association)와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가 첫 B2B 성격의 태양 에너지 컨퍼런스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2004년에 최초 개최하였다. 당시 태양 에너지 산업은 매년 40% 이상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지만, 잠재 고객들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 등 산업과 관련한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행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최 이후 전시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얼마가지 않아 2만 명이 훌쩍 넘는 참관객을 유치하는 북미에서 가장 큰 전시회 중 하나로 거듭났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 West Hall 전시장 입구



Solar Power International 2010 현장 스케치

Solar Provider와의 네트워킹과 시장 리더들과의 관계 구축에 있어 최고의 행사인 Solar Power International 2010이 태양광 에너지의 메카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에서 10월 12일- 14일, 총 3일간 개최되었다.

중국, 독일, 스페인, 캐나다, 대만 등 20여개의 주요 태양광 산업국에서 1,10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SPI 2010은 지난해 참관객 24,000명에 이어서 올해는 27,000명 이상이 관람하여 미국 최대의 태양광 전시회로써 자리매김하였다.

전시장은 크게 South Hall, West Hall 그리고 Kentia Hall로 나뉘어 있으며 참관객들이 쉽게 원하는 부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잘 구분되어 있었다. 등록 데스크는 Kentia Hall 앞에 위치하였으며 Hall 내부에선 Aleo Solar, Toshiba, Bosch Solar Energy 등의 업체가 앞 다퉈 여러 가지 제품 카테고리를 선보였다. South Hall에는 Yingli Solar, SMA America, Canadian Solar, 현대 중공업, SOLON 등 PV 셀과 모듈, CSP, CPV 관련 업체들이 자리 잡았으며, West Hall은 Conergy, Schneider Electric, LG Electronics, groSolar 등 부품, 기기, 원자재 설비 업체들로 이루어졌다. 한국관은 South Hall에 지자체 홍보관 포함 총 10개사가 참가하여 세계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KOTRA가 주관하는 한국관의 참가업체로는 경원, 에스엔디, 파루, 에스에프씨 등 총 8개사가 참가하였는데 PV모듈과 트래커, 인버터, 백시트 필름을 전시하였으며 황해FEZ와 새만금FEZ는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개별적으로 참가한 한국업체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과 오성LST, 심포니 에너지 등 중소, 중

전기기업들이 있으며 PV셀 및 모듈, 트래커, 인버터 등을 전시하였다. 한편 South Hall내에는 구직 센터도 마련해두어 구직자들에게 태양광 기업으로의 취직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태양광 시장, 정책, 재정, 기술, Cross-cutting에 관한 다양한 컨퍼런스 세션을 포함하였는데, 약 200여명의 유명 인사들이 태양광과 Smart-Grid, 태양광 산업의 친환경화, 미국 태양광 산업과 세계와의 비교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Pre-Post 컨퍼런스 워크숍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정책, PV 시스템 설치의 기본, 태양광 시장 소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뤄 태양광 산업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에게 기초 지식과 함께 심층적인 컨퍼런스 세션을 듣기에 앞서 사전 준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스와핑, 멤버십 미팅, 네트워크 파티 등 다양한 컨퍼런스와 부대행사가 이번 SPI 2010의 열기를 한층 더 북돋아주었다. 아이디어 스와핑은 소규모로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는 동시에 태양광 전문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태양광 기업의 인력 개발, 기술적/비기술적 비용 절감' 등 총 6가지의 주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오후에는 L.A Live!에서 전시 참가업체 간 대규모 소셜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둘째 날엔 Public night 워크숍이 열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관심 있는 대중들에게 무료로 전시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시장 홀 내부 풍경



전시장 내 구직 센터, 첫째 날 밤에 열린 L.A Live! 네트워크 파티



세계 태양광 기업들의 신기술이 한 자리에

중국의 작년 태양전지 생산량이 4000MW 규모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태양전지 총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다. 올해도 중국의 태양전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

에 발맞춰 중국 정부는 태양 에너지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린 GDP' 창출을 지원하는 등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SPI 2010에도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Suntech, ET Solar, JA Solar, Yingli Solar, Solar fun 등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지난 2분기 총매출이 USD 625.1M으로 전년대비 94.8% 상승한 중국의 Suntech은 이번 전시회에서 최대 출력 200W, 변환 효율 15.7%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 HiPerforma TM Pluto200-Ade를 선보이며 설치 및 시스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Solarfun은 UL 인증을 획득한 다결정 태양광 모듈 SF 260-36을 선보였는데, 이는 평균 효율 15.0%로서 건물 옥상 및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 전지와 모듈에 이르는 다양한 태양광 에너지 제품들을 함께 홍보하였다.

중국의 Yingli Solar 부스, Suntech Power 부스 전경



Suntech이 선보인 새로운 모듈 라인
HiPerforma module 200W



일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국가관 외에 개별 업체로 SANYO, KYOCERA, SHARP 등의 대기업들이 참가하였다. SANYO는 19.3% - 20.2%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잉곳, 웨이퍼를 선보였는데, 대표적으로 HIT Double은 양면

솔라 패널로서 빛에서 전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반사되는 빛까지도 활용하여 제곱피트 당 전력생산이 기존제품보다 최대 30% 이상 높다고 홍보했다. HIT Double은 발코니, 버스정류장, 건널목, 그라운드, 지붕, 스카이라이트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부속품이 없어 설치가 용이하다.

일본 KYOCERA는 안전인증을 획득한 고성능 태양광 모듈 KD185를 선보임과 동시에 35년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Sanyo 부스와 KYOCERA 부스의 모습



일본 Sharp 부스와 이번 SPI에서 Sharp가 선보인 NU-U235F3



신재생 에너지 선진국 독일에서는 국가관과 함께 SCHOTT Solar, SMA, 큐셀, 프로니우스 등 태양광 산업의 여러 대표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세계적인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인 SMA는 지난해 9억3,400만 유로의 (1조 4127억원) 판매고를 기록할 만큼 PV 인버터 시장 리더 기업으로서 전 세계 13개국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SMA는 새로운 인버터 Sunny Boy를 출시하여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Sunny Boy (2000HF / 2500HF / 3000HF)는 새로운 디자인의 붉은색 인버터로 기존 모델에 비해 더 큰 LC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으며, 최첨단 Wireless 블루투스 기술로 집안 어디에서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과 무게를 줄여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점으로 관람객들에게 어필했다. 이밖에 SCHOTT Solar는 태양열 집적기와 효율 17.6%의 다결정 태양광 모듈을 전시하였고, 프로니우스는 태양광 인버터 Fronius IG Plus 시리즈를 전시하였다.

독일 SMA 부스 전경과 SMA의 인버터 제품 소개를 경청하는 참관객들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기업 UNI-SOLAR는 이번 전시회에서 PV 모듈 라미네이트를 선보였다. UNI-SOLAR의 PV 모듈은 건축학적으로 디자인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과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점, 고온에 잘 견디는 점 등을 내세웠다.

또 다른 미국 기업 에버그린 솔라는 태양광 모듈 ES-A 시리즈를 선보였다. ES-A 205.210 & 215는 스트링 리본 (String Ribbon)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태양광 모듈로서 계통형 및 비계통형 시스템 설치에 적합하다. 이 모듈은 특히 성능이 뛰어나고, 획기적인 웨이퍼 생산 과정을 통하여 공해가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세계 주요 태양광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20여 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이 참가하였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310W 고효율 모듈과 함께 RIE 기술을 적용해 광변환 효율을 높인 RIE 모듈 등 앞으로 출시될 차세대 고효율 제품들을 선보여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최고출력 260W의 크리스털 화이트 모듈과 250W의 프리미엄 블랙 모듈을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독일, 일본의 시중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도 고효율을 자랑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태양광 모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개발, 성능 테스트, 사업 경제성 검토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에너지 토털 솔루션을, 신성 홀딩스는 2 Bus Bar / 3 Bus Bar 단결정 및 다결정 태양전지, 컬러 태양 전지 그리고 태양광 모듈 등을 소개하였다.

한국 삼성전자의 부스 전경과 모듈



한국 LG전자의 부스 현장



현대중공업의 부스 전경과 태양광 모듈



기업관 외 국가관 또한 이목 끌어

이번 SPI 2010에는 한국을 포함 일본, 독일, 대만, 멕시코, 스페인 등이 국가관을 설치하였으며, 멕시코 티후아나 경제개발단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태양광센터, 미국 AGA, NABCEP, Solar Energy International 등 많은 비영리 단체들 또한 자체 부스를 가지고 참관하였다. 한국관 맞은편에는 스페인관이 위치하였는데, 스페인관의 경우 SECARTYS 주관으로 자국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의 PV 셀, 트래커, 모듈과 패널을 선보였다. 타 국가관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일본관에서는 JETRO가 오사카 지역의 홍보와 일본의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였다. 멕시코관은 Pro-Mexico 주관으로 멕시코 투자환경 설명과 함께 KIOTO CLEAR ENERGY의 태양열 집적기를 홍보하였다.

대만관, 독일관, 스페인관, 멕시코관



한국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태양광 전시회 참가

KOTRA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자체 홍보관 포함 총 10개사, 14개 부스의 규모로 참가하여 한국 태양광 산업 대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본격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전시장 South Hall 내 한국관을 설치하여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과 기술제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경원, 에스엔디, 파루, 쉐트랙, 에스에프씨, 탑썬, 다스테크, 에스에너지 총 8개사가 참가하여 인버터, PV 모듈, 트래킹 시스템, 백시트 필름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KOTRA가 운영한 홍보관에는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은 물론이고 셀러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확인하고 한국 업체들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새만금 FEZ와 황해 FEZ는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홍보관을 설치하여 산업단지를 홍보하고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최근 현대중공업, 한전KDN, 삼성물산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태양광 사업관련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과 잠재력을 앞세워 유럽을 제치고 새로운 태양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많은 비즈니스 성공스토리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K]

한국관 부근의 전경



- ▶ 개최기간 : 2010.10.12 ~ 2010.10.14 (3일간)
- ▶ 개최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
- ▶ 개최주기 : 매년 (2010년 7회째)
- ▶ 개최규모 : - 전시면적 719,575 s/f (South Hall + West Hall + Kentia Hall)
- 참가업체 수 : 20 여 개국, 약 1,100개 업체
- 참관객 수 : 27,000명 이상
- ▶ 전시주관 : - 태양전력협회(SEPA : Solar Electric Power Association)
-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 :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 ▶ 홈페이지 : www.solarpowerinternational.com
- ▶ 전시분야 : PV Cells and Modules, Inverters, Monitoring systems, Racks, Battery storage, Equipment, Component parts, Solar Water Heating, Solar pool Heating 등
- ▶ 한국관 참가내역
 - 참가연혁 : 2009년 최초 참가, 올해 2회째
 - 참가규모 : 8개사 12개 부스 (2개 지자체 홍보관 별도)
 - 참가업체 : 경원, 에스엔디, 파루, 쉐트랙, 에스에프씨, 탑썬, 다스테크, 에스에너지
 - 참가품목 : PV 모듈, 트래커, 인버터, 백시트 필름 등